

마의태자의 흔적을 찾아나서는 하늘재

1. 목적 및 배경

- (사무소별 특화 배경) 자연생태,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자연보전 의식 함양 및 지역기반 미래세대 환경지킴이 양성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탐방 해설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마의태자의 흔적을 찾아나서는 하늘재
- 대 상 : 성인
- 운영기간 : '20.4.14.(화) ~ 11.10.(화) 매월 셋째주 화요일 14:00~16:00
- 운영형태 : 2시간/회
- 장 소 : 미륵대원지.하늘재 탐방로.
- 주요내용 : 국립공원 및 월악산 국립공원. 중원 문화와 미륵대원지의 보물들
- 소요예산 : 없음
- 참 가 비 : 무료(참가비 발생시 참가비 기입)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기관 협의,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협조 참가자 확보, 포스터, 배너 등 제작하여 SNS 및 주요입구에 게시
- 참가자 접수 방법 : 국립공원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유선 접수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본사 주관 온라인 만족도 조사

첨부 1. 일정표

2.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3. 현황사진 2장 원본(각 사진 용량 3MB 이상)

<일정표>

시기	강좌	시간	주요 내용	장소
4월~ 11월	1부 인간의 문화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 및 월악산 국립공원 - 하늘과 맞닿은 '2천년 숲길' 하늘재 - '중원문화' 왜 계란 노른자라 하나요? - '중원 미륵대원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미륵리, 미륵대원지, 하늘재 탐방로
	2부 자연의 문화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 잊고 살았던 발밑 세상 - 체험을 통한 생명의 소중함 찾기 - 마의 태자에게 보내는 편지 - 자연은.... 	하늘재 탐방로, 미륵리 주차장
			활동) 맨발로 숲속 걷기	
			숲속의 기를 받기	
			땅속 생물 입장되기	

<단위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자연
해설

마의태자의 흔적을 찾아나서는 하늘재

활동장소	월악산 국립공원 미륵리 하늘재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성인
참가인원	15명/해설사1명

활동목표

2006년 우리나라 등산 인구를 조사한 결과 월1회 등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약 9백만 명이며 주1회 이상은 6백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연령대로는 50대 40대 60대 순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등산인구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은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노면의 훼손과 탐방로의 샛길 발생, 각종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인한 산림환경의 오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탐방문화 즉, 역사·자연해설을 통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자연 속에서 사람도 자연의 일부임을 배운다

준비물

연꽃무늬 담아가세요(탁본체험-한지, 솜방망이, 먹물, 수건, 솔, 스프레이, 먹물접시 등)

유의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스트레칭 진행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국립공원 및 월악산국립공원 소개 	5분
전개 (체험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을 따라 이루어진 역사와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늘과 잇닿은 '2천년 숲길 신라'에 의해 처음 개척된 가장 오래된 옛 길“하늘재” 우리의 맥‘백두대간’ ‘중원문화’왜 계란 노른자라 하나요? 중원 미륵대원지, 어떤 비밀 품고 있을까요? 자연의 소중함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잇고 살았던 발밑 세상 체험을 통한 생명의 소중함을 찾기 	10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사후평가서 작성 주변정리 및 손 씻기 	15분

국립공원 및
월악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곳은 바로 월악산국립공원의 하늘재 역사·자연관찰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재 역사·자연관찰로를 출발하기 전에 월악산과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아야 하겠죠!
국립공원이란 우리가 조상에게 물려받은 문화자원, 자연자원, 경관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곳입니다.
월악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20개의 국립공원 중 1984년 12월 31일 17번째로 지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은 산이 아닐까요?
예부터 우리민족은 산의 생김에 따라 영험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산을 신성시하며 명산대천에 제를 지냈습니다. 월악산도 그 산의 생김이 기이하여 “소사”를 지냈던 명산으로 흥미롭고 신비로운 산입니다.
월악산 생김새의 기이함은 월악산 주봉을 “영봉”이라 부르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지요. ‘신령스러운 봉우리’, ‘신비로운 봉우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영봉, 그 봉우리의 생김을 살펴볼까요?
영봉은 바라보는 위치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륵리에서 바라 본 월악산은 부처님이 거꾸로 누워 있는 와불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반대편에서 영봉을 바라보면 여인이 누워 있는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월악산의 신은 여신이라 하고, 음의 기운이 강한 산이라 하여 아들 낳는 바위로 알려져 있지요.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 영봉 아래 덕주사에는 남근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생활의 필수가 의식주 말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동성, 즉 교통이죠! 그리고 교통은 하늘 길을 포함하여 길이라는 수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동차와 도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길에는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꼬불꼬불한 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또한, 법에 의해 건설되고 관리되는 고속도로부터 가장 오래된 옛길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으며 길의 역사를 우리 월악산

하늘과 잇닿은
'2천년 숲길'
-
신라에 의해
처음 개척된
가장 오래된
옛길
“하늘재”

국립공원에서 찾아봅시다.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야생동물의 통로가 도로로 발전했다는 설과 야생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다니던 길 또는 계절적으로 이동하던 길을 인간이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히 의식주를 해결하던 때의 길을 벗어나 어떤 이용목적에 의해 탄생된 우리나라의 길은 언제부터 개통이 되었을까요?

저기 마루금이 보이죠?



하늘과 잇닿은 “2천년 숲길, 한민족을 위한 최초의 도로 하늘재” 입니다. 하늘재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신라본기」에 “아달라 이사금 3년 여름 4월에 계립령 길을 열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하늘재는 삼국시대 백두대간을 넘어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려는 신라에 의해 처음 개척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고갯길입니다.

삼국시대에는 계립령으로, 고려시대에는 대원령으로, 조선시대에는 현재 불리는 하늘재로 불리어졌으며, 하늘재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재(고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걷고 있는 하늘재 길이 탄생되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죽령”은 2년 후인 158년에 개통되었습니다. 또, 새도 쉬었다 간다는 “조령”은 조선시대 1414년에 개통되었습니다.

하늘과 잇닿은 '2천년 숲길' - 또한 경부선 철도는 1904년, 그리고 1925년 이화령 고개가 개통 되면서 길의 역사가 이어지고, 이화령 고개 역시 이제는 옛 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길은 행정구역상 충주시 미륵리와 문경시 관음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이 불교문화와 떨어져서는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가장 오래된
옛 길
“하늘재”

불교에서 관음은 현세, 미륵은 내세를 뜻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고갯길이 현세와 내세의 갈림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문경시는 아스팔트로 잘 포장되어 있고, 국립공원 구역인 미륵리는 옛길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흥망성쇠를 함께 합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지요.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며, 후손에게는 어떤 길을 물려 줄 것인가요?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옛 길! 하늘재를 거닐며 생각해보세요.

백두대간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백두대간이란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를 말하며 총길이는 1400km, 이중 남한 구간의 마루금은 길이가 701km이며, 월악산국립공원은 남한에 있는 백두대간 중 허리부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백두대간 마루금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지요. 마패봉에서 포암산과 대미산, 황장산까지 높고 가파른 산봉우리가 연이어 이어진 구간으로 벌재까지 그 길이는 32.6km입니다.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정기의 상징으로 국토의 등뼈이며 생물종이 다양한 생태축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맥
‘백두대간’

또한 한강, 금강, 낙동강의 발원지로서 모든 생명의 시작이자 중심지이며, 우리민족의 생활영역과 문화양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백두대간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져 있듯이 백두대간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립공원 7개구간 316.9km 가운데 5개구간에서 68km가 훼손되었으며, 이는 연평균 주말에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2,000여명의 사람들로 인한 생태파괴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훼손된 백두대간의 회복과 보호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5년 서울시 면적의 4배 정도 되는 지역 즉, 2천634km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파괴된 산줄기를 잇고, 끊어진 생태계를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백두대간 복원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맥
'백두대간'



'중원문화'
왜 계란
노른자라
하나요?

하지만 정부의 법 규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백두대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따라서 백두대간을 찾아 국토순례를 하는 참 의미와 올바른 탐방문화 정신이 우리민족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을 보전, 보호하는 것이고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백두대간 뿐 만 아니라 우리의 전 국토를 사랑하고 숲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켜내야 할 백두대간! 백두대간은 우리민족의 정신이요 몸입니다.

중원문화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요? 중원문화에 다가가는 방법은 '중원'이라는 말의 뜻을 풀어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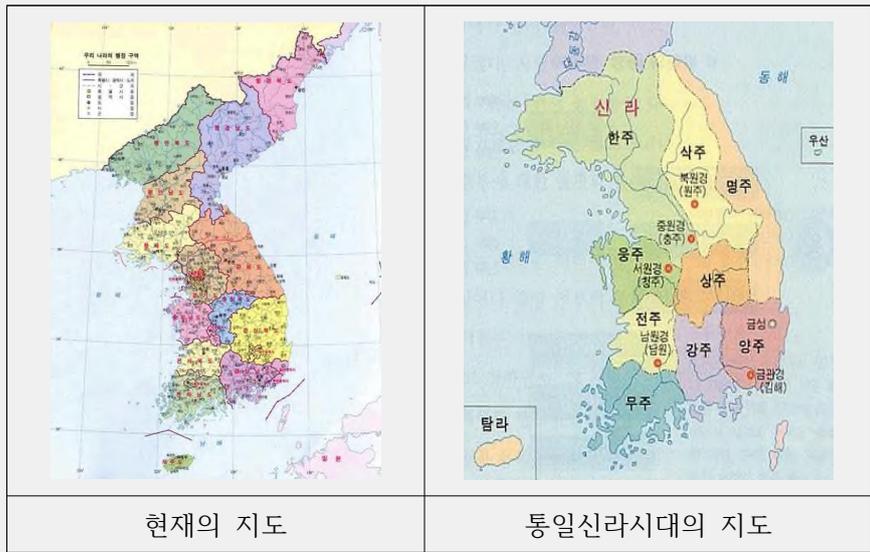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죠?

이곳은 충주입니다. 충주의 옛 지명을 알고 있나요? 옛날부터 충주는 나라의 중심, 나라의 근원이라 하여 국원성, 중원경 등의 이름으로 불리어 졌습니다..

생태 해설판 지도를 보세요. 우리나라의 중심이 충주인가요?

생태 해설판 지도에 직접 선을 그어 보세요. 예상했던 답 '충주'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나라 지금의 모습은 조선시대에 갇추어 졌고, '중원경'이라는 지명은 통일 신라 때 불리어진 것이니까 다른 역사 속 지도를 보아야겠죠.

(통일신라 때 우리나라 지도)이 지도에도 선을 그어 보세요.



‘중원문화’
왜 계란
노른자라
하나요?

(중원문화의
발생지)

총주를 찾을 수 있지요. 우리에게 중앙탑이라 알려진 ‘중원탑평리칠층석탑’을 아시나요? 이 탑은 통일신라시대 국토의 중앙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탑입니다.

※ 여기서 잠깐!! : 통일신라시대는 중앙탑의 위치를 찾기 위해 어떤 측량 방법을 이용했을까요?

-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먼저 신라에서 가장 걸음을 잘 걷는 사람을 2명 뽑았답니다. 두 사람의 보폭을 같게 맞춘 후 한 사람은 남쪽으로, 한 사람은 북쪽 끝으로 이동해 동시에 출발하여 둘이 만나는 곳에 탑이 세워졌던 것이지요.

고구려의 총주 이름은 국원성, 신라의 총주 이름은 중원경에서 알 수 있듯이 총주는 삼국이 서로 차지하려 끊임없이 전쟁을 하던 곳입니다.

왜 삼국은 이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중원지방에 위치한 월악산 지역은 지름재에서 하늘재로 이어지는 계립령을 비롯하여 남한강 수운을 통하여 사람과 문물, 군사가 오가는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것은 정보이지요. 역사 속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했을까요? 편지나 문서를 전달하는 파발, 사람이 가서 전달하는 보발, 말을 타고 가서 전달하는 기발, 높은 산에 봉수대를 설치하고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하는 봉화를 정보 전달의 방법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빨리 전달하기 위한 통신 면에서도 이곳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원문화’
왜 계란
노른자라

문경에서 오는 마골점과 탄항산, 주정산으로 봉수대가 이어지고, 역원제도로 미륵원과 황강역이 있었으며, 수운을 이용한 옛날 군의 창

고 있던 창터까지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자연 속에서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세요.

- ‘내가 삼국시대에 살았다면 무엇을 필요로 했을까?’ 생각해 본다.
- 주변에서 역사를 담고 있는 자연물을 찾아본다.

(주변에서는 철광석을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하나요?
(중원문화의
발생지)

고대국가의 힘을 상징하는 자원은 무엇일까요? 단단한 칼과 방패를 만들 수 있는 철이겠죠. 이 지역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양질의 철이 생산되고, 그 외의 지방 토산물이 풍부하여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답니다. 삼국이 서로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 및 교류에 따라 고구려, 신라, 백제 문화가 모두 보여 지며, 남한강 수운과 함께 고려시대의 불교문화와 조선시대의 문화까지 연결됩니다. 물과 길과 사람이 만나 문화를 형성한 곳이 바로 이곳 월악산 지역이 중원문화의 시작이며 중심지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이 지역에는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까지 우리 문화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이며, 교통의 중심지로서 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발달되어 온 곳이 이 지역이지요.



중원
미륵대원지,
어떤 비밀 품고
있을까요?

미륵대원지는 동쪽으로 하늘재, 서쪽의 지름재 사이의 분지에 위치하고 있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이전까지 남북의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여, 계립령이 지나는 통로이며, 또한 계립령의 군사시설과 더불어 비보 또는 원찰이나 수륙도장의 목적으로 경영된 중원문화의 중심에 위치한 사찰로써 문화·군사의 중심지입니다.

중원
미륵대원지,
어떤 비밀 품고
있을까요?
(미륵대원지의
가치)

삼국시대에는 삼국문화를 하나로 통일하고 나라의 세력이 왕성할 때 이 지역을 장악하여 중원을 지배함으로써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77년부터 1999년까지 5차례 걸쳐 발굴조사를 했지만 창사 및 중수, 폐지에 관한 문헌기록이 전혀 없고, 1차 발굴 시에 출토된 [명문기와 편]에 “명창3년 대원사주지승원명”이라는 이름이 확인 되었을 뿐입니다.

미륵대원지에는 본존불, 석등, 오층석탑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미완성석불, 건물지, 석조귀부, 연화문당간, 사각석등, 공깃돌, 석조물 등 중요한 문화 자료가 많은 곳입니다.

명문기와 편 외에는 어떠한 것도 발굴되지 않은 그야말로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세계!! 중원미륵대원지~~ 우리는 유적의 건축기법과 양식을 통해 시대를 거슬러 그 시대의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창건 되었을 미륵대원지! 대규모의 석굴사원터! 교통과 문화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이며, 명승사찰이었을 미륵대원지 속 담겨진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중원
미륵대원지,
어떤 비밀 품고
있을까요?
(미륵대원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가장 잘 알려진 전설 속 주인공 마의태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마의태자는 신라의 마지막 왕자로 신라가 고려 태조 왕건의 신흥세력에 대항 할 길이 없자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신라를 고려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자 누이인 덕주공주와 함께 이루지 못한 신라 부흥의 꿈을 안고 금강산으로 떠나던 중 문경군 마성면의 계곡 깊은 곳에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날 밤 마의태자는 관음보살을 만나는 신기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관음보살이 왕자에게 말하기를 "이곳 서쪽으로 고개를 넘으면 서천에 이르는 큰 터가 있으니, 그 곳에 절과 석불을 세우고, 복두칠성이 마주보이는 자리에 영험한 봉우리를 골라 마애여래입상을 이루면 역조창생에 자비를 베풀 수 있으니 포덕함을 잊지 말라" 하였습니다. 마의태자의 신기한 꿈은 놀랍게도 공주 역시 같은 꿈을 꾸게 되면서 이를 기이하게 여긴 두 남매는 다음날 서쪽고개를 넘어 복두칠성을 마주하고 영험한 봉우리가 보이는 장소를 택해 석조여래입상을 세우고, 별빛을 받는 최고봉 아래에 마애여래입상을 조각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후 마의태자는 금강산을 향해 떠났고, 덕주공주는 덕주사에 남아 아버지인 경순왕을 그리워하며 태자의 건승을 빌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륵대원지 석조여래입상은 마의태자의 상이요, 덕주사 마애여래입상은 덕주공주의 상이라. 두 남매가 마주보고 있는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원
미륵대원지,
어떤 비밀 품고
있을까요?
미륵대원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현실적으로 멸망한 나라의 태자가 미륵대원지와 같은 대규모 사찰을 지을 만한 경제력과 인력을 동원할 힘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 속에 우리는 다른 역사 속 주인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그 주인공인데요. 왕건이 태조로 즉위한 후, 충주일대의 토착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락혼인을 통해 당시 신흥세력을 확대하게 되는데, 이런 건국 초기의 신흥의 세력을 바탕으로 삼국시대 이래 전략상 요충지인 계림령 주변에 사찰을 짓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 북방의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북향의 미륵대원지 석조여래입상을 세웠다는 설이 보다 현실적인 추측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의태자와 왕건 외에 동시대의 이 지역에 이들과 역사를 함께 하며, 자신을 ‘미륵불의 화신’으로 칭할 정도로 미륵신앙의 신봉자였던 공예와 경상도 상추 출신으로 일찌감치 하늘재와 죽령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 진출을 끝임 없이 시도한 견훤 역시 미륵대원지 속 주인공은 아니었을까요?

사찰을 세운 주인공이 누가 되었던 이 지역이 삼국시대부터 하늘재와 지름재를 관장할 요충지이며, 많은 사찰과 객원이 경영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원
미륵대원지,
어떤 비밀 품고
있을까요?

자연 속에서는 오감을 느끼며 자연체험을 하지요? 하지만 역사 체험은 어떻게 할까요? 역사체험은 내가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되어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미륵대원지의 숨어있는 비밀을 찾아 역사여행을 해볼까요? 폐허가 된 미완성의 유물들을 볼 때 이리 저리 흠어져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수학적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미륵대원지 석조여래입상과 석등까지 90척, 석탑까지 150척, 미륵대원지석조귀부(돌거북)까지 270척, 당간지주까지 450척에 이르는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즉, 이들

(미완성의
자연석
그 보이지 않는
수학적 질서의
배치)

유물들 사이에는 30척의 일정한 질서가 있고, 법당건물의 배치도 승원공간, 예불공간, 병영터로 여기서도 ‘3’이라는 숫자를 기본으로 했으며, 사찰 가람 구성이 금당공간, 법당공간, 진입공간으로 일정한 법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또한 석실의 석축높이와 오층석탑의 높이, 미륵대원지석조귀부의 길이가 6M로 같으며, 석탑과 석등, 석조귀부를 자연석으로 다듬었으며, 부분적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은 미완성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미륵대원지 석조여래입상 앞에서 눈을 감고 사방의 산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중원
미륵대원지,
어떤 비밀 품고
있을까요?
(하늘이 정한
그 곳~~
미륵대원지)

무엇이 느껴지나요?

미륵대원지 석조여래입상은 주흘산을 축으로 동으로는 포암산, 서로 신선봉, 북으로는 월악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산들을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연결하면 십자(十字)로 교차되는 중심에 있어 네 개의 산 기운이 모이는 명당에 자리 잡은 풍수에서 말하는 천심십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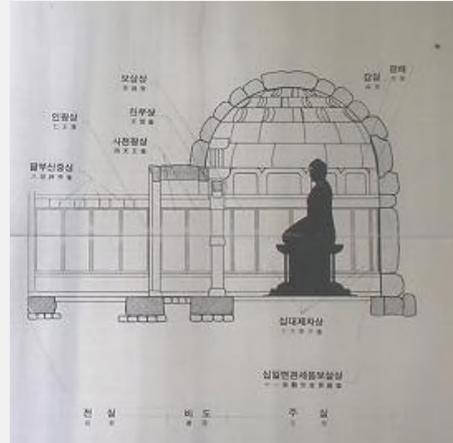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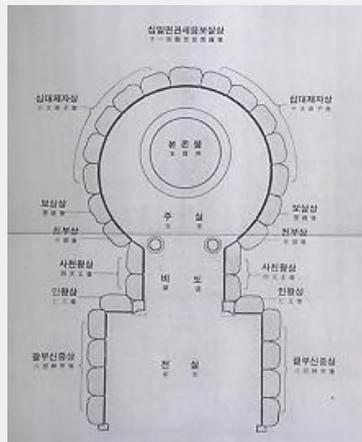
아무리 풍수적으로 좋은 땅이라 해도 어딘가에는 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동쪽의 포암산이 서쪽의 신선봉보다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단점을 찾았으면 보완을 해야겠죠. 따라서 동쪽의 혈이 허한 것을 막기 위해 석불 입상의 오른쪽 즉, 하늘재를 오르는 입구에 삼층 석탑을 세워 자연의 결점을 인위적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석굴사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화재가 무엇인가요? ‘경주 석굴암석굴’ 이지요. 왜 석굴사원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미륵대원지는 석굴암석굴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형식을 시도한 석굴이기 때문입니다. ‘총주 미륵대원지’ 그 속엔 어떤 신비로움이 숨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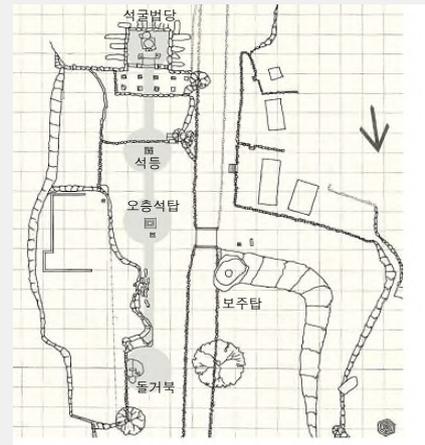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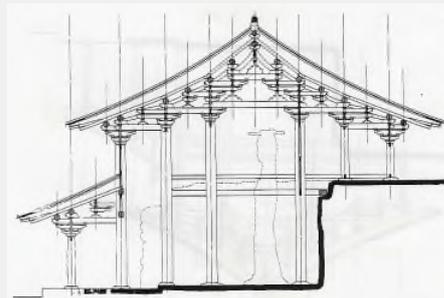
중원
미륵대원지,
어떤 비밀 품고
있을까요?
(석굴사원에
담긴 1000년의
미스터리)

석굴암석굴과 비교하며 알아보을까요? 석굴암석굴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나요? 석굴암석굴은 천장까지 둥글게 돌을 쌓아올린 완전한 돔형석실을 가지고 있지요. 미륵대원지 석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미륵대원지 석굴 사원은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중간정도 까지만 돌을 쌓고, 그 위에 목조법당을 지어올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원형공간에서 사각형공간으로 변화되었답니다. 또한 석굴암석굴은 돔형 식으로 사방이 막힌 폐쇄형 석굴인데 반하여 미륵대원지 석굴은 3면은 막히고 전면은 개방된 반개방

불당 형식을 취하고 있어 폐쇄된 불당의 형태에서 개방된 미륵불 신앙의 형태로 변해가는 과정의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굴암석굴>



<미륵대원지 석굴>

우리가 보아왔던 석굴암석굴의 본존불과 미륵대원지 석굴의 본존불은 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석굴암석굴은 아미타불을, 미륵대원지 석굴은 미륵불을 본존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서도 우리는 그 시대의 모습을 엿 볼 수 있지요. 석굴암석굴은 신라 재상 김대성이 자신의 부모 즉, 선조가 극락인 서방정토에 다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본존불로 했으며, 국가적인 역사성으로 신라의 번영과 전쟁으로 죽은 영혼들을 위해 건립되었다고도 전해 집니다.

중원

이에 반하여 미륵불을 본존불로 하는 미륵대원지 석굴사원은 56억 7천만년

이 지난 후 인간세계에 나타나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미래의 희망을 나타내는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통일신라 말 고려 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민족 신앙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지요.

두 석굴이 다른 점만 있다면 이야기가 재미없겠죠. 두 석굴사원이 닮은 점은 무엇일까요?



주실 내부에서 본존불이 약간 뒤로 물러서 있고, 석굴 주실 앞에 배례와 의식의 공간으로서 전실을 달아내고, 본존불 뒤에 감실을 두어 부처와 보살상을 두었다는 것이 석굴암석굴을 모방하고 계승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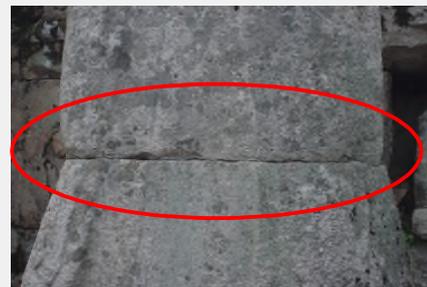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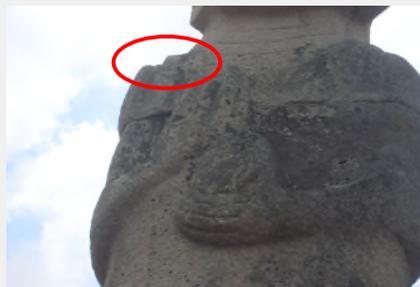
미륵대원지,
어떤 비밀 품고
있을까요?
(석굴사원에
담긴 1000년의
미스터리)

현재의 미륵대원지 석굴사원은 나무로 된 부분은 불에 타 남아있지 않고 석불입상과 석축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요. 함께 찾아볼까요?

6개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10.6m의 거불, 미륵대원지 석조여래입상은 거대한 원통의 몸체에 조각수법이 소박하며, 머리에 판석이 얹힌 점 등 고려시대 충청도 지방 석불의 특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륵대원지 석조여래입상 만의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몸체가 전반적으로 밋밋해 보이는 미륵대원지 석조여래입상이지만 삼도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이 돌음 새김으로 조각된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하반신은 두 개의 돌로 나뉘어져 있는데 옷 주름 선 등의 조각된 선이라든가, 상하석이 절단된 부분이라든가 등의 어떠한 변화에 의해 돌로 나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종원
미륵대원지,

왜 미륵대원지 석조여래입상은 10m의 거석이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불사를 크게 하고, 자비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거석의 입상의 형식을

취하며 그에 따라 안치할 불전도 대규모의 중층 혹은 3층 형식을 취합니다. 경전에 의하면 미륵불이 하생할 미래세계는 인간의 수명이 84,000세, 키가 160척이 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석불입상을 나눠드린 국립공원 엽서에 그려보세요.

※ 석불입상의 비밀을 찾아라.

- 석불입상 가까이에서 6개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석불입상을 그려본다.
- 그림을 그리므로써 석불입상의 특징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찾은 석불입상의 비밀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 본다.

내가 찾은 첫 번째 비밀!! 석불입상은 왜 얼굴만 유난히 흰 것일까요?

다양한 추측을 할 수 있지요. 이끼가 생기지 않도록 얼굴만 닦아준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듯이 석불입상의 돌갓이 비를 막아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석불입상 밑으로 물이 흘렀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물이 습도 조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비밀 품고 있을까요?
(석굴사원에 담긴 1000년의 미스터리)



내가 찾은 두 번째 비밀!! 석불입상은 왼손에 무엇을 들고 있나요?

오랜 세월이 지나며 지금은 정확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지요. 이것은 무엇 일까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약병일까요? 주변의 부조리와 환경에 물들지 말라는 의미를 담은 진흙 속에서도 오물이 불지 않는 꽃, 연꽃일까요?

내가 찾은 세 번째 비밀!! 석불입상 뒤의 석축 사이로 불좌상이나 보살상을 찾으셨나요?

미륵대원지 석굴사원은 미륵불을 중심으로 3면 벽에 있는 벽장 시설이나 남 벽에 부처와 보살상이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가 되는 부처가 앉아 있고 그 주위의 격이 낮은 불상이 서 있지만 이곳은 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
미륵대원지,

어떤 비밀 품고 있을까요?
(석굴사원에 담긴 1000년의 미스터리)

중원 미륵대원지, 어떤 비밀 품고 있을까요?
(미륵대원지의 문화재 : 탑)

중원 미륵대원지, 어떤 비밀 품고

내가 찾은 네 번째 비밀!! 미륵대원지 석조여래입상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 일까요?

마의태자가 덕주공주를 그리워하며 덕주사마애여래입상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삼국을 통일한 고려가 북방의 옛 고구려 땅을 되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 멀리 만주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선조들의 흔적, 문화재에서 찾은 궁금정은 역사 속에서만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미륵대원지 석굴사원은 석굴의 분위기를 만족시킨 한국 석굴사원의 마지막 걸작이자 인도에서 발생하여 한반도에 도착한 국제적인 석굴의 마지막 석굴사원입니다.

2000년의 길의 역사가 시작되고, 1000년의 문화재가 살아 숨 쉬는 월악산! 큰 고개 길 밑에 있었던 큰 절과 원! 미완성의 역사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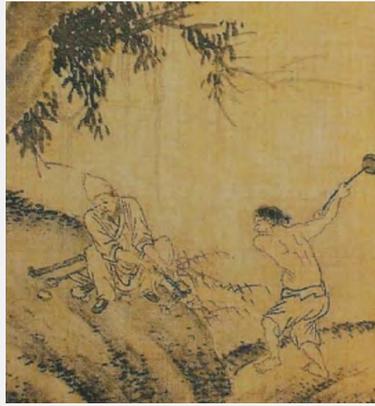
다음으로 석불입상, 석등과 일직선을 이룬 보물 제95호 중원미륵대원지오층석탑에 대하여 알아보을까요? 원래 있던 바위로 탑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존불-석등-석탑’ 이 일직선을 이룬 단탑식 절집 구조에서 서쪽으로 조금 비껴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탑의 높이는 6m 인데요. 6m의 탑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돌을 자르고, 운반하고, 쌓았을까요? 탑을 통하여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를 엿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역사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석탑은 대부분 돌을 다듬고 하나하나 쌓아서 이루어지지요. 큰 돌을 어떻게 잘라 석탑의 모양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시에 먹, 윤두서(1668~1715)>

있을까요?
(미륵대원지의
문화재 : 탑)

한 사람은 정을 잡고, 한 사람은 휘어질 정도 무거운 망치를 들고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 속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림 속의 이들은 큰 돌을 자르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돌을 자를 곳에다가 선을 그은 뒤 흙집을 내고, 흙집을 낸 곳에 기름과 같이 불이 붙는 물질을 부은 다음 불을 붙이면 돌이 갈라집니다. 갈라진 틈에 썰기를 박고 망치로 단단히 박은 후 그 썰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 썰기에 물을 부으면 나무가 물을 흡수해 팽창하게 되는데 그 힘으로 돌이 깔끔하게 잘라지는 것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고인돌을 만들던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바위를 깨뜨려 사용했답니다.

그림의 두 사람은 무엇에 쓰려고 저리도 힘을 쓰며 돌을 깨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미륵대원지오층석탑을 만드는 석공의 모습도 그림 속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다 완성된 석탑의 조각을 쌓아야겠죠.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어떻게 무거운 돌을 운반할 수 있었을까요?

나무를 돌을 운반할 길 위에 깔아놓고 돌을 그 위에서 굴리면 통나무가 앞으로 굴러가고 돌은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운반되어 온 돌을 쌓아야겠죠? 좋은 아이디어 있나요? 우리 조상들은 흙을 이용하여 돌을 쌓은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흙을 어떻게 이용한 것일까요? 제일 아래 받침이 되는 돌을 놓고 그 돌과 같은 높이로 흙을 쌓아 올린 다음 그 경사면을 이용하여 돌을 올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탑을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중원
미륵대원지,

오층석탑은 다른 탑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탑의 기단부를 보세요. 땅 속 깊이 박혀 있는 자연석을 이용한 기단은 그 깊이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위의 특유의 모양 때문인지 기단 면석

한 면이 직각을 이루지 못 하고 이그러져 있어 흥미롭습니다.
 또한 기단 면석 위의 2매의 돌로 이루어진 기단갑석은 한 쪽의 돌에는 갑석 아래로 부연이 표현되었지만, 다른 쪽의 돌에는 부연이 표현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화려하지 않고 수수하고 투박한 모습을 한 미륵대원지오층석탑, 미륵대원지의 역사 속 주인공은 신비함 속에 쌓여 있지만 그 주인공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즉, 빨리 완성해야 하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한명의 석공이 아닌 여럿의 석공이 탑을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탑에서 다른 양식의 석탑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고, 화려한 기교를 넣은 석탑을 만들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떤 비밀 품고 있을까요?
 (미륵대원지의 문화재 : 탑)



<박혀 있는 자연석을 이용한 기단>



<2매로 이루어진 기단갑석>

재미있는 퀴즈 하나 낼까요? 탑 맨 위의 철로 된 장식을 찰주라고 하지요. 찰주는 번개에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뉴스에서 탑이 번개 맞았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적이 없죠! 탑의 찰주는 쇠로 만들어졌지만 찰주 아랫부분이 고령토와 같은 흙을 발라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번개를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석등의 화창을 통하여 미륵대원지 석조여래입상을 바라보세요. 얼굴을 찡그리고 여러분을 맞이하나요? 아님 온화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하나요?
 옛 사람들은 1월1일 새해가 되면 석등의 화창을 통하여 미륵대원지 석조여

중원 미륵대원지, 어떤 비밀 품고 있을까요?

(미륵대원지의
문화재 : 석등)

래입상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왜 바라보았을까요?

석등 안으로 보이는 석불입상의 표정에 따라 한 해의 운을 점쳤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올해 운은 어떠신가요?

중원미륵대원지석등은 우리나라 석등의 일반형으로서 기본 형태는 8각이고 지대석만 4각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이 완전하게 남아 있는 작품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하대석은 단엽 8판 복련이 조각된 연화대석으로 연판이 볼륨이 있으면서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고, 상대석은 아랫면에 각형 1단을 마련하고 단엽 8판 양련을 조각하고 판내에는 화문을 장식했습니다.

화사석은 사면에 화창을 마련했는데 화창 주변에는 문틀 모양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못 구멍이 있어 창호지로 막았던 흔적으로 보이며, 옥개석은 8각이며, 옥개 윗면에 복련의 조각이 보이며 상륜부는 팔각의 상륜받침과 연봉형의 보주가 얹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등양식의 기본형을 잘 따르고 있으며,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석등의 구조 중에서 재미있는 말이 있지요. “양련과 복련” 사찰과 가장 가까운 식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꽃이지요. 사찰과 연꽃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찰에 연꽃이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꽃은 진흙 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물이 묻어도 그냥 흘러내려가고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연꽃의 특성은 주변의 부조리와 환경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자라서 아름답게 꽃피우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꽃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상징은 모든 식물의 꽃들은 꽃이 피고서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 씨앗(열매)이 영글어 지고 꽃이 지고서야 씨앗이 나지만 연꽃만은 유일하게 꽃이 피는 동시에 씨앗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생(生)사(死)불이(不異)>라고 하여, 즉 생겨짐과 사라짐이 둘로 따로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석등에 새겨진 양련과 복련도 연꽃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양련을 살펴보세요? 복련을 살펴보세요? 연꽃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양련은 연꽃잎이 위쪽을 향해 피어 있어 ‘위를 보는 연꽃’, 복련은 아래쪽을 향하며 ‘뒤집어진 연꽃’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도 부처님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양련은 하늘을 우러러 있으며 깨달음을 얻고자하는 간절한 기도를 복련은 땅을 향해 엮드려 있으며 중생을 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중원
미륵대원지,
어떤 비밀 품고

본래부터 이 자리에 있던 화강암의 거대한 바위를 다듬어서 만든 미륵대원지석조귀부는 길이 6.05m, 높이180cm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거북모양 비석 받침돌입니다. 머리는 정면으로 뺀치고 있는 귀두형이고, 석조귀부의 등

에는 가로로 흠을 파서 비신을 꺾었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없어진 비신에는 분명히 절의 창건 내력이나 연혁 또는 중수사실 등이 기록되어 이 사찰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몇 차례의 발굴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거북 등의 왼쪽 어깨부분에 작은 거북 2마리가 기어 올라가는 형태로 음각되어 있으며, 거북의 발은 형식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앞의 두 발은 한쪽은 윤곽만 보여 지고, 한쪽은 새김이 선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마무리가 덜된 흔적이 보여 전체적으로 미완성의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신도 본래부터 세워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있을까요?
 (미륵대원지의
 문화재 :
 석조귀부)



<석조귀부 등의 작은 거북 2마리> <미완성의 흔적>
 북쪽을 향하여 기어가고 있는 미륵대원지 석조귀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좌측 어깨 부분에 작은 거북 두 마리가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통하여 응집력 즉, 고려로부터 신라를 되찾고자 힘을 모으려는 마의태자의 의지 또는 새롭게 세운 나라의 부국강병을 바라는 왕건의 의지를 찾을 수 있지요. 또한 발의 모양을 보면 왼쪽 발은 뒤로, 오른쪽 발은 앞으로 북쪽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국권회복을 바라던 마의태자의 마음과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자하는 왕건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절터의 입구에는 지주의 외면에 연꽃이 새겨진 당간지주와 둥근 받침이 새겨진 당간좌대 등 부러지고 해체된 당간지주의 부분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당간지주에 연꽃이 조각되어 있는 것은 이곳 미륵대원지 당간 지주와 경주의 보문리 당간지주 단 2기뿐입니다.



중원
 미륵대원지,
 어떤 비밀 품고
 있을까요?
 (미륵대원지의
 문화재 : 못다한
 이야기)

따라서 경주의 연화문 당간지주와 충주 미륵대원지의 연화문 당간지주, 경주의 석굴암석굴과 충주 미륵대원지의 석굴사원을 볼 때 많은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이지요.

※ 연꽃무늬 담아가세요~~

- 당간지주의 새겨진 연꽃 무늬를 탁본한다.

1. 탁본도구(한지, 솜방망이, 먹물, 수건, 솔, 스프레이, 먹물접시 등)를 준비한다.

2. 탁본할 대상에 한지를 얹고 스프레이로 물을 조금씩 뿌려 고정시킨다.

3. 수건으로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눌러 공기를 빼낸다.

4. 한지를 한 장 더 대고 솔로 윗면을 두드려 한지가 완전히 밀착되게 한다.

5. 덧댄 한지를 떼고 물기를 말린다.

(말리지 않고 탁본 할 경우 먹물이 번지게 됨)

6. 먹물을 먹물접시 안에 있는 스펀지에 조금 따른 후 솜방망이에 묻혀서 한지 위에 두드린다.

(처음에는 농도를 연하게 하여 골고루 두드린 다음 점차 진하게 한다)

7. 완성되면 한지를 떼 내에 신문지 사이에 놓고 눌러서 편다.

동쪽으로는 하늘재가, 서쪽으로는 지름재가 한눈에 보이는 길가에 자리 잡은 이 탑은 전형적인 통일신라 석탑 양식을 따른 소박하고 단아한 모습의 탑입니다.

왜 절에서 똑 떨어진 이곳에 따로 석탑이 위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탑을 세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산 속의 등대처럼 이정표 역할을 했으리라 추정되며, 다른 네 방향에 비하여 낮은 하늘재 방향의 땅의 기운이 약한 것을 보강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라 추측됩니다. 탑 주변에서 작은 암자나 군사시설의 흔적으로 여겨지는 기와조각으로 보아 사찰의 규모를 짐작케 해주기도 하지요.

하늘재를 오르는 입구에 불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완성의 석불로 추정되는 불두는 높이 1.38m, 너비 1.18m의 거대한 화강암 불두로 이목구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눈매는 일자형으로 눈은 작게 표현되어 있으며 특이한 것은 코와 입 사이의 주름선인데, 큰 코와 대비되는 작고 굳게 다문 입 사이에 세로로 깊이 파인 주름선의 모양은 다른 불두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당간지주>



<미륵대원지삼층석탑>



<불두>

여러분은 이 불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불두의 표정을 따라 해 보세요? 행복할 때의 표정일까요?

불행할 때의 표정일까요?

깊게 패인 주름선, 해학적인 눈이나 코 등의 표현을 통하여 고통스러운 민심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미륵대원지” 지금은 남아 있는 문화재를 통하여 사찰의 규모만 짐작할 수 있지요. 그 큰 규모의 사찰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석공이 불두에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는 불두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갓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형상’이란 표현이 어울릴까요?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천년 역사를 거쳐 현재 자연의 숲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연 속에서 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눈을 꼬옥 감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걷는 시간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낯선 일에 좀 쑥스러워 합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자연의 어우러짐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한발 한발 내딛으며 걷는 길은 앞으로 내가 맞이할 보이지 않는 미래의 길이며 지나온 길은 내 삶의 과거입니다.

‘여러분은 꿈꾸었던 삶을 살고는 있나요?’

인간의 문화에서
자연의
문화속으로

‘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무엇인가요?’

‘부모로서 때론 자녀로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주변에 몸이 불편하거나 나보다 못하다 하여 차별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의 지난 또는 미래의 모습을 또는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추억을 ‘내 삶의 나이테’를 만들어 보세요.

※ 내 삶의 나이테 만들기

- 나무의 나이테를 이용하여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그려진 나이테에 가장 기억에 남은 시간 또는 가장 되돌리고 싶은 순간,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순간의 모습 등을 나이테에 스티커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 스티커를 붙인 후 그 기억 또는 앞으로의 계획을 메모로 남긴다.



옛길의 역사를 나이테로 표현
숲에 오면 우리는 보이는 숲만 바라봅니다.

향기나 자태가 예쁜 꽃, 나무, 곤충, 동물...

잊고 살았던
발밑 세상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도 감탄이 저절로 나지요. “아~~좋~~다!” 라고. 숲에 들어오면 눈도 마음도 편안해지지요. 그것은 숲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색 “녹색” 이 주는 효과입니다. 녹색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색이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나와 숲에 온 자체로 감사하고 아름다움에 감격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는 고마움을 우리는 그냥 스칠 때가 많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나무뿌리가 살아가는 모습 ~~

(돌과 나무가 하나 되어 사는 모습을 보여 주며 잠시 생각의 시간을 준다.)

잊고 살았던
발밑 세상



돌 틈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나무와 돌과의 어울림, 키 작은 나무와 키 큰 나무의 어울림 등 자연의 문화 속에서는 수 많은 어울림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도 자연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연과 어울려 있는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지배하려는 권리는 없다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이 자연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요?

※ 다른 눈으로 보는 숲

- 체험 설치 시설물에 높이에 따라 나 있는 구멍을 통해 각 높이에 따른 숲의 모습을 관찰한다.
- 어느 구멍 속의 숲에서 가장 많은 식물이 보였나요?
- 하층에 사는 식물들의 생존전략은 무엇일까요?
- 각각의 숲의 모습은 어떤 생물이 보는 숲일까요?
- 어떤 숲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다른 눈으로 보는 숲

큰 나무들이 자라는 공간
→ 화강암 다른 나무들보다 빨리 자라났거나 성장 속도가 빠른 나무들이 자라는 공간(아열대)

작은 나무들이 자라는 공간
→ 위층의 나무보다 키가 작은 활엽수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늘에서도 살 수 있는 나무종수들로, 땅 가까이에서 햇빛을 받아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좋고 작은 생물들이 자라는 공간
→ 무거운 돌과 작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아열대 활엽수는 무거운 돌을 잘 밟아놓을 수 있도록 해가 위해 작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활엽수 나무와 같은 큰 나무를 손쉽게 무리가 들 수 있는 작은 생물들로 만들어버립니다.)

→ 나무의 층상으로 보는 숲의 건강상태

녹색경보 - 살아있는 개체가 200정도 있음	황색경보 - 살아있는 개체가 10 정도 [이제 나무가 잘 살아있음]	적색경보 - 살아있는 개체가 1000이하 [이제 나무가 아님]
------------------------------------	----------------------------------------------------	-------------------------------------------------

※ 숲이 건강할수록 숲의 밑층이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있습니다.
※ 숲의 건강을 보려면 숲의 바닥에서부터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숲의 건강상태를 아십니까? 관찰하세요!

생태신국립공원관리소장

탐방이 어려운 곳으로 판단되는 경사가 있거나 탐방시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곳에 목재 데크를 설치함으로 탐방객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데크를 걸으며 특이한 점 발견하셨나요? 데크의 일부가 강화유리로 설치되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던 햇빛이 비추는 곳의 식물과 데크 밑의 햇빛이 비추지 않은 곳의 생태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 작아 보였던 자연이지만 숲에서 느끼는 자연은 위대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숲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무한 참고입니다.

잇고 살았던
발밑 세상





자연에서 느끼는
생명의 의미

데크 위를 걸으며 내 발밑 세상을 돌아본다.
우리는 숲에 오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내 발 밑과 주변을 살피는 안목을 키우고 잊었던 숲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느끼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웁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사소한 미물도 그 생명을 대신 할 수 없음을 함께 느끼며, 2천년 숲길에 지속 이용 되어온 자연이 미래세대에게도 어떻게 하면 지속이용가능하게 할 수 방법인지 느껴보는 시간을 가진다.

우리 몸의 98%를 지탱해 주고 있는 발!

체험1. 흙의 감촉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발입니다. 흙 맨발로 숲 속 걷기 과 숲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신발과 양말을 벗어보세요.

우리가 자연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두꺼워지고, 요란해지는 신발모양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신발이라는 틀에서 자유를 주고 땅의 지기를 받아 봅시다.

※ 맨발로 숲길 걷기

- 흥미 유발

→ 어른 : 고무신을 신고 산으로, 들로뛰어놀고 언제든지 벗어던질 수 있었고 발 또한 흙과 쉽게 만날 수 있었던 옛 추억이야기를통하여 체험을 시작한다.

→ 어린이 : ‘인디언’ 이 되어 보세요.

자연을 가장 잘 느꼈고, 그랬기에 땅 위의 발 자국, 배설물 만으로도 어떤 동물인지 구별하고, 땅의 미세한 떨림이나 냄새만으로도 누가 오는지 알 수 있던 인디언 이야기를 통하여 체험을 시작한다.

- 처음에는 흙길에서 시작하지만, 솔잎이 떨어진 소나무 숲길도 걸어보고, 참나무잎이 떨어진 활엽수림도 걸어보고, 돌과 나무뿌리가 있는 거친 숲길도 걸어 본다.

체험을 통한
생명의 소중함을
찾기

체험1.
맨발로 숲 속 걷기

- 천천히 걸으며 흙의 감촉을 느껴보고, 딱딱한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를 밟으며 학교를 다닐 때 또는 회사를 다닐 때의 내 발과 숲을 걸었을 때의 내 발의 느낌을 비교해 본다.



발과 땅 사이에 신발이나 양말이 있을 때보다, 딱딱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해물이 있을 때보다 훨씬 숲 가까이에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양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숲 속의 기를 내 온몸 가득 받아 봅시다.

녹색의 세계에서 내 내면의 세계에 귀 기울여 봅시다.

내 마음이 얼마나 분주한지, 얼마나 쉴 새 없이 움직이는지, 마음의 소음과 끊임없는 생각과 감정들 속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고요를 체험해 보는 시간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남에 갈등과 번민 잡념이 생겨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 숲의 흙을 오감으로 느끼기

→ 양손에 탐방로의 흙과 낙엽 속의 흙을 선물로 나누어준다.

→ 양손의 것을 비교하여 본다, 냄새, 촉감, 습도 등 우리의 감각을 이용하여 느껴 본다.

→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 체험자의 생각을 들어 본다.

모든 생명체의 터전인 흙!

흙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처음생긴 때는 4억 년 전입니다. 바위가 비와 바람, 열에 부딪혀서 생겨난 결정체라고 흙이지요.

바위가 1cm의 흙으로 변하기 위해서 몇 천 년이 걸리고, 1cm의 산림토양이 되기 위해서는 몇 백 년이 걸린답니다.

이 귀중한 흙! 그렇다면 흙은 어떻게 구성 되었을까요?

공기, 물, 광물질(동식물의 사체, 배설물, 부식물질)

체험2.
숲 속의 기를 받기

고체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은 물을 간직하고, 양분저장 역할을 하고 모래는 물이 잘빠지고 공기를 잘 통하게 함으로 많은 미생물과 생명체의 터전을 이룹니다.

흙이 숨을 쉬고 흙도 우리처럼 밥을 먹습니다.

즉, 땅 속의 사는 생물들이 잘 살 수 있으려면 살아 있는 좋은 흙이 잘 보전되어야 합니다.

※ 땅 속 생물이 되어 보세요.

- 양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손수건을 땅에 깔고 그 위에 한 쪽 귀를 대고 원을 형성해서 옆으로 눕는다.
- 다른 한 팀은 누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원으로 들어가 발을 구른다.
- 정규 탐방로 외에 함부로 다녀서는 안 되는 이유를 느끼게 해주고 그들이 숲에서 하는 일과 고마움을 같이 생각해 본다.

체험3.

땅 속 생물 입장되기 땅 속 작은 생명체가 되어 보세요.

사람들의 발소리가 땅속에 사는 생명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국립공원에는 가야될 길과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야될 길 이외의 길은 작은 생명체의 보금자리가 되고 그 위에는 작은 생명체의 도움으로 숲이 우거지게 되는 것이죠.

내 한발 한발이 숲에서 중요한 생명의 발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죠!!

숲 속의 공기는 도시의 공기보다 200배나 맑다고 합니다. 이런 숲에서 내 몸속을 정화 해 봅시다.

※ 숲에서 건강을 지켜요.

- 적당한 체조, 스트레칭(S.P.A 삼림욕 체조), 복식호흡(깊은 호흡) 등은 피톤치드의 체내 흡수와 산소의 호흡량이 많도록 하여 삼림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체험4.

숲에서 건강을 지킨다.

- 복식호흡

- 가부좌 자세로 앉으시고 양손을 겹쳐 배 중앙(배꼽) 단전 부위에 올려놓는다.
- 자세를 편안히 한 후 숨을 크게 들이 쉰다.
- 들이 쉴 때 배가 최대한 볼록 나오도록 하고, 천천히 숨을 내쉴다.

→ 들이쉬고 내쉬는 비율은 1:2의 비율로 하지만 최대한 길게 내 쉬는 것이 효율적이다.

우리는 평소에 보통 흉식호흡 하고 지금 하신 호흡을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 장수 동물들 즉, 고래 거북, 코끼리 등은 느리고 깊게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고래는 최고 수명120세이고 숨을 한 번 들이 쉰 상태로 물속에서 30분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긴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복식호흡을 하면 소화 장애와 변비를 없애주고 다이어트와 우울증 등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한 마디 더 붙이면

“내 들숨 속의 산소는 나무들이 만든 것이며, 내 날숨속의 이산화탄소는 나무들의 식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인 것입니다.

※ 『마의태자의 흔적을 찾아나서는 하늘재』 해설프로그램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마의태자에게 보내는 ○○○편지』 써 보며 탐방느낌을 정리한다.

마의태자에게 보내는 편지 <사후평가서>

< 마의태자에게 보내는 ○○○편지> < 탐방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

※ 위의 내용 작성동안 월악산 탐방프로그램 소개, 해당공원 지역의 주요 자연, 문화, 역사, 경관자원 소개한 리플렛, 탐방 안내지도 등을 참여자에게 제공한다.

자연은...



자연의 문화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만의 어울림으로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이루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화는 어떤가요?

자연의 문화에 비하여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새것이 넘쳐나는 문화이지만, 어울림은 찾을 수가 없지요.



인간의 문화는 자연의 문화의 일부이며, 자연의 문화에서 시작됩니다.

‘미륵대원지가 길 때문에 세워졌고, 길 때문에 쓰러져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이것을 보세요. “나는 무엇일까요?”

나무와 구름과 땅 속의 작은 생물, 풀 등의 어울림으로 만들어진 “숲”입니다.

글자 숲과 우리가 바라보는 숲은 같습니다.

“나무는 태반입니다. 나무줄기는 탯줄이고 가지는 동맥과 정맥입니다.”



라고 비유한 민족이 있습니다.

생명의 모체인 나무! 나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숲을 보호하는 일이며, 나의 생명을 보호 하는 것이며, 인간의 문화 즉,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 후손의 재산인 숲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 국립공원 잘 사용해서 내 후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자연의 문화를 지키고, 인간의 문화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참고문헌

- **백두대간** :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태백산 부근에 이르러 서쪽으로 기울어 남쪽 내륙의 지리산까지 이르는 거대한 산줄기로, 이 땅을 대륙과 이어주는 뿌리이자 줄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총 길이는 1400km이며, 남한의 길이는 701km, 그 중 월악산에 32.6km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 (2014.1 산림청 고시)

- **중원문화**

중원이란 “넓은 들 한가운데” 라는 의미와 “나라의 중심”, “천하의 중심”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생활하기 좋은 석회동굴이 이 지역에 발달하기 때문에 문화가 시작되었고, 또한 삼국의 각축장, 고려시대의 불교문화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남한강 수

운으로 연결되는 통사문화라 한다. 중원문화권은 백두대간을 축으로 한 남한강의 중·상류 지역에 위치하며 석회암 지대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선사시대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선사문화가 발달하여 구석기 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는 까닭에 각 문화의 교류와 전파에 있어 교통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계립령, 죽령, 문경새재, 이화령으로 변한 고개의 의미와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고개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문화와 교통로, 문화유적이 발달된 지역이다.

중원문화의 중심 “월악산”	
1. 사찰의 명승지 - 미륵대원지 : 고려 - 덕주사 : 신라 - 신륵사 : 신라 - 사자빈신사지 : 고려 - 월광사지 : 신라	2. 군사적 요충지 - 덕 주 산 성 - 지릅재 산성 - 미륵대원터 - 궁 궐 의 터
3. 교통·통신의 중심지 - 하늘재 : 육로 - 황강영 : 수로 - 동창과 서창 : 수로 - 탄항산봉수 - 마골점봉수	4. 중원문화의 시발점 - 남방문화와 북방문화의 교차지 - 불교와 유교가 이곳을 통해서 남부를 거쳐 일본으로 전개 - 가야와 신라문화가 이곳을 통해 북방으로 전파 - 종합적인 문화권 형성

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며 4,5세기 무렵에는 고구려의 세력권에 들었다가 6세기 중엽 진흥왕의 북방 진출로 마침내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6세기 후반에는 고구려의 온달이 “계립령과 죽령이 북의 땅을 되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출사표를 던지고 한강유역으로 출전했다가 전사한다. 또한 이곳은 백제와의 싸움에서 크게 패한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에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 (642년) 연개소문을 앞세운 보장왕이 “마목현과 죽령은 본디 우리 땅이니 돌려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면서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는 사건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길은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였고, 한강과 낙동강 사이에 자리잡고 있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던 요충지이다. 이 계립령은 백두대간을 넘기 위해 오가던 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다. 이 길은 문경시 관음리와 충주시 미륵대원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불교에서 관음은 현세, 미륵은 내세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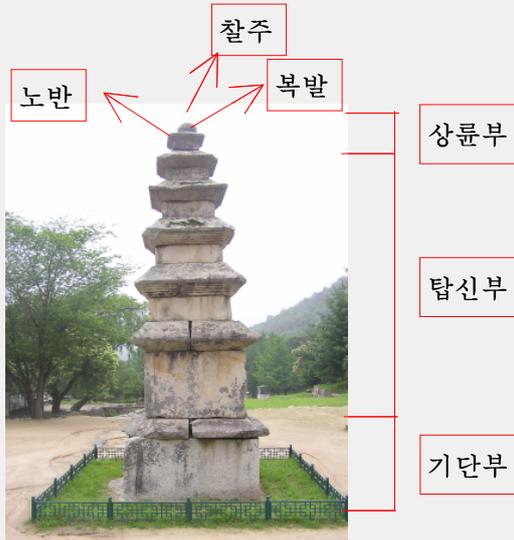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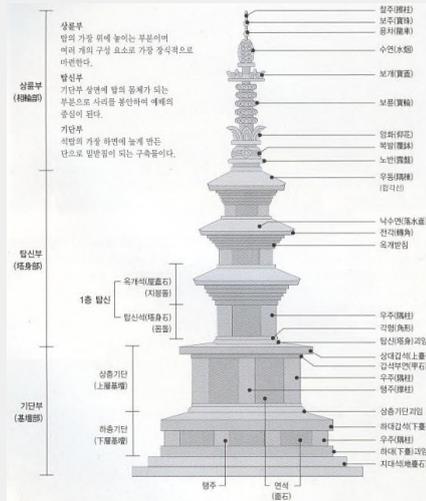
이것은 바로 이 고갯길이 현세와 내세의 갈림길이라는 의미를 남고 있다. 길의 의미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길 위에서 신분이 나뉘기도 했다.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다닐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었다. 조령은 과거 보러 가던 양반들이 지나던 길, 하늘재는 중인들이 다니던 길, 문경 동로에는 스님들이 다니던 길이 따로 있었다. 하늘재는 156년에 뚫렸고, 그 뒤 158년 죽령이 새로 생겼고, 조선시대인 1404년에는 조령(문경새재)으로 길이 났다. 그리고 1900년대 초 경부 철도가 뚫리고, 일제시대 이화령이 다시 생겼다.

○ 마의태자의 발자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의태자가 지나간 길 경주 → 영천 → 선산 → 상주 → 문경 → 계립령 → 양평 → 홍천 → 인제 - 마의태자가 남긴 흔적들 계립령 - 미륵대원지와 덕주사 양평 - 용문사 은행나무 홍천 - 동면의 지왕동 인제 - 김부리 / 한계산성
--	---------------------------------------------------------------------------------------------------------------------------------------------------------------------------------------------------------------------

○ 미륵대원지오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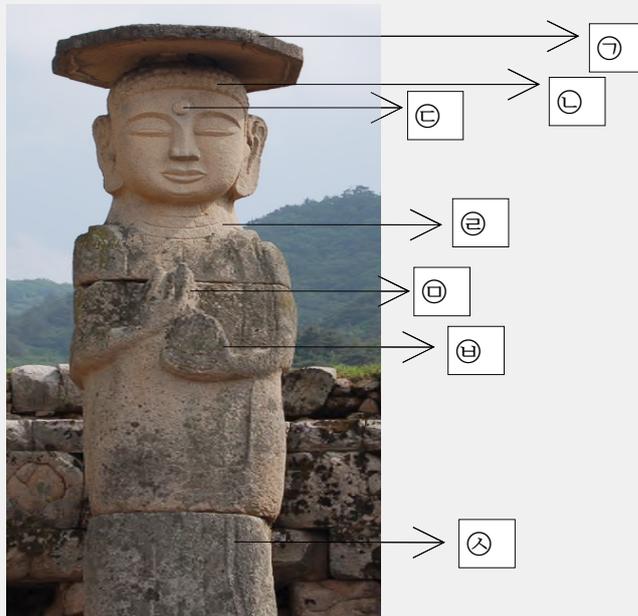
- 면석 : 우주와 탕주사이 벽을 막아댄 넓은 돌. 면석의 위치에 따라 상층기단 면석, 하층기단 면석이라고 함.
- 갑석 : 기단의 상면에 놓이는 넓은 돌. 위치에 따라 상대갑석, 하대갑석이라 함.
- 지대석 : 기단부와 지면이 닿는 부분에 놓이는 돌. 탑을 세우는 기초
- 탑신석 : 석탑의 몸체에 해당하는 부분. 몸돌이라 함.
- 옥개석 : 탑신석의 윗면에 놓이는 돌.
- 노반 : 상륜부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사각 모양을 하고 있다. 탑신부와 상륜부의 경계를 짓는 역할을 하며, 경사면의 옥개석 위해 상륜부를 반듯하게 올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 복발 : 동그란 반원형으로 위의 구조물을 받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 찰주 : 상륜부를 구성하는 각 부재들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신라 탑의 모습을 많이 짓고 있는 고려초기의 석탑.

- ㉠ 신라탑의 특징인 지붕돌 밑면 직선의 처마 받침 + 고려탑의 특징은 지붕돌 급경사·형식적인 기둥새김.
- ㉡ 기단덧개돌, 1층몸돌의 지붕돌은 2매의 돌로 이루어짐. 원래 있던 바위를

이용.

- ㉠ 탑의 아름다움보다는 탑을 세움으로서 기상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추측
- ㉡ 기단부의 아랫부분이 땅 속에 파묻혀 있어서, 그 구조가 어떤 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각 층의 몸돌에는 몸돌의 넓이에 비하여 좁은 기둥을 모서리에 새겼다. 지붕돌은 급격하게 좁아져 석탑 전체의 균형과 미관을 손상시키고 있다. 지붕 밑면의 받침은 5단이지만 추녀가 짧아서 6단인 것처럼 보인다. 처마는 수평이고 지붕돌의 경사는 매우 급한데 귀퉁이의 치켜 올림은 거의 없는 편이다. 탑의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으로 노반(머리장식받침)과 복발(엮어 놓은 그릇 모양의 장식)이 남아 있는데, 노반은 6층 지붕돌로 일만큼 큼직하고 복발은 반원 모양이다. 정상에는 머리 장식의 중심을 지탱하기 위해 세운 긴 쇠꼬챙이모양의 찰간이 남아 있다.



※ 불상의 자세 - 입상

입상은 부처가 서 있는 모습을 그리거나 조각한 상. 우리나라 불상 표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세.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교화하며 법을 전하려는 행동적인 모습으로 불교 전래 초기인 삼국시대에 많이 사용됨.

※ 불상의 종류 - 미륵보살상

대승불교가 발전함에 따라 석가모니불이 열반한 뒤 56억 7천만년이 지난 후 인간세계에 나타나 용화수 아래에서 3번 설법하고 성불하여 석가모니가 구제할 수 없었던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보살.

미래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구세주로 생각되어 어려운 시기마다 민간에서 크게 신앙됨.

㉠ 팔각모양의 것

㉡ 나발 : 머리카락이 소라처럼 오른쪽으로 말려 올라간 모습을 형상화한 머리 형식으로 보통 울퉁불퉁하게 표현

- 나발 위쪽으로 육계를 볼 수 있다.

육계는 부처의 정수리에 상투처럼 우뚝 솟아오른 혹과 같은 것으로 부처의 지혜를 상징. 원래 인도의 귀족들이 머리카락을 위로 올려 묶었던 것에서 유래

㉢ 백호 : 양 눈썹 사이에 있으며,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무량세계에 널리 비쳐 전해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상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원래는 부처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희고 빛나는 털이라 한다.

㉣ 삼도: 불상 목 주위에 표현된 3개의 주름으로, 생사를 윤회하는 인과(因果)를 나타내며 흑도(惑道) 또는 번뇌도(煩惱道), 업도(業道), 고도(苦道)를 의미. 원만하고 광대한 불신(佛身)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형식으로 보통 불, 보살상에서 볼 수 있다.

㉤ 시무외인의 수인(불상의 손가짐)

: 오른손을 어깨 높이 까지 올려 다섯손가락을 가지런히 위로 뻗고 손바닥을 바깥으로 향한 자세로 구원·보호·축복의 상징. 시무외는 부처가 중생들에게 베푸는 두려움 없는 삶의 선물로 마음의 평화를 고취시키며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문제점에서 해방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생의 두려움, 우환, 고난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수인

㉥ 연꽃봉오리로 보임.

: 진흙 속과 같은 더러운 곳에서도 깨끗하게 피는 꽃으로 청정미묘함을 상징

㉦ 통견 : 통양견법의 약칭으로 착용시 양 어깨를 모두 덮는 착의법

- 관모~발끝부분까지 6개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짐. 얼굴은 몸에 비하여 훨씬 더 정성을 들인 듯 한 느낌. 특이한 점은 얼굴부분이 유난히 희다는 것. 팔은 형체만 겨우 살렸으며 오른손은 가슴에 들어 손등을 보이게 했으며 왼손은 오른손 아래서 손바닥을 위로하여 가볍게 무엇인가를 쥐었다. 몸체에 비하여 발은 작은 편이다.

- 미륵대원지는 사각의 형태로 삼면은 돌로 이루어졌으나 위와 앞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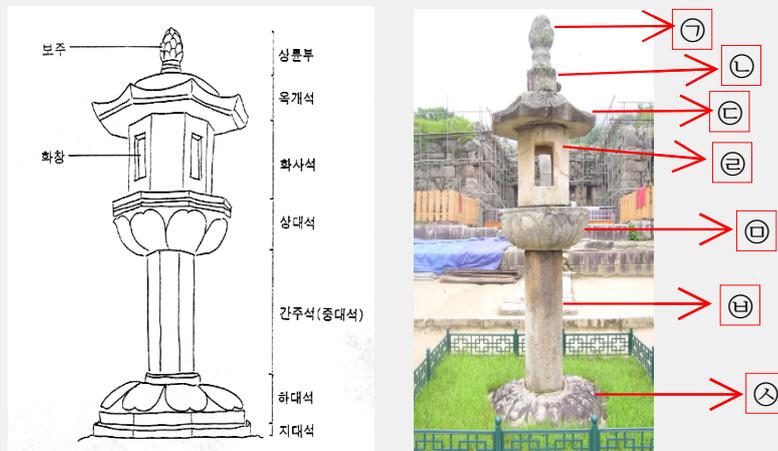
나무로 된 목조건물로 연결됨. 현재 나무로 된 모든 것은 불로 소실. 주실 내부에서 본존불이 약간 뒤로 물러서 있고, 석굴 주실 앞에 배례와 의식의 공간으로서 전실을 달아냈다는 증거로 경주의 석굴암 양식을 계승하였다고 보여 지고, 다른 점은 돌을 중간까지만 쌓아 올리고 바로 목조 전실과 이어졌다는 것, 주실이 네모지다는 것이다.



○ 충주 미륵대원지 석등

각 부분이 8각의 평면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상·중·하로 이루어진 3단의 받침을 마련하여 불을 밝히는 화사석(火舍石)을 올린 후 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이다. 바닥돌과 아래받침 돌은 한 돌로 이루어졌으며, 아래받침 돌에는 얹어놓은 연꽃무늬를 돌렸다. 가운데기둥은 적당한 높이에 간결한 모습이다. 윗 침 돌에는 아래 받침돌과 대칭되는 연꽃무늬를 조각하였다.

화사석은 불빛이 퍼지도록 4면에 창을 내었다. 지붕돌은 여덟 귀퉁이가 살짝 치켜 올려졌다. 꼭대기에는 8각의 낮은 받침 위에 보주(꽃봉오리 모양의 장식)를 얹어 머리 장식을 하고 있다.



- ㉠ 연봉형 보주(寶珠)가 조각
- ㉡ 8각의 상륜 받침
- ㉢ 옥개석 : 추녀선은 약간 반전하였다.
- ㉣ 화사석 : 8각 중 4면에만 화창이 뚫려 있다.
- ㉤ 상대석 : 아랫면에 각형 1단을 두었고 8잎의 앙련을 새겼다.
- ㉥ 간주석 : 아무런 장식이 없는 8각 돌기둥
- ㉦ 하대석 : 8잎의 복련이 새겨져 있다.

○ 미륵대원지 석조귀부

석불입상과 더불어 북향을 하고 있다. 길이 6.05m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거북모양 비석 받침돌이다. 원위치에 있는 거대한 바위를 다듬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위치로 보아 사적비를 세웠던 받침으로 추정되는데 비신은 없어지고 등에는 비좌의 조출이 없이 비신을 꽃았던 구멍만 뚫어져 있다. 좌측 어깨 부분에 작은 거북 두 마리가 기어 올라가는 형태를 음각하였고(이것은 미륵대원지 전설에 얽힌 마의태자와 관련하여 이야기 하면 새끼 거북이가 등을 타고 올라오는 모습을 통하여 응집력 즉, 망해가는 나라의 왕자가 나라를 되찾고자 힘을 모으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도 하고 발의 모양을 보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 이것은 진취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왕건에 얽힌 이야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륵대원지 석조여래입상과 더불어 북향을 하고 있어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왕건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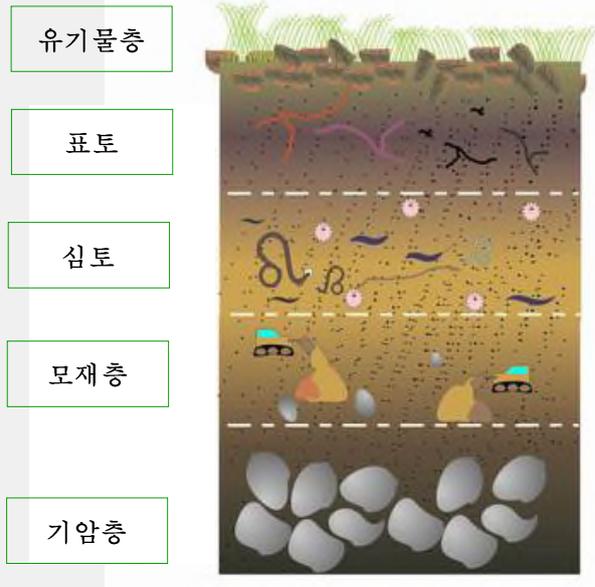
앞쪽 발은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 하였으나 형식화 되었다. 없어진 비신에는 분명히 절의 창건 내력이나 연혁 또는 중수사실 등이 기록되어 이 사찰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몇 차례의 발굴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하였다.

○ 미륵대원지 삼층석탑

통일신라시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 3.3m , 3층 석탑으로 미륵리 사지에서 동쪽으로 500m 쯤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를 세우고 꼭대기에 상륜부를 장식한 일반형 탑신으로 높이는 3.3m이다.

전체적으로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시대가 고려로 내려옴으로 인해 지붕돌 밑면받침 수가 4단으로 줄어드는 등 후대의 양식이 나타난다. 대체로 소박하고 단아한 모습을 갖추었다. 현재 상층기단 면석과 3층 탑신 윗부분이 없어 젖고 노반석만 놓여 있으나 각층의 비례가 신라식을 따른 단아한 석탑이다. 기단 갑석의 부연이나 옥개석의 형태 등으로 보아 건립 시기는 고려 초기 로 추정된다. 1층 탑신에 비하여 2층 탑신은 그 높이가 많이 축소되었으며 2층 옥개석과 거의 유사하나 전

각 부분이 약간 날카롭다. 3층 옥개석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현재는 3층 탑신위에 노반이 놓여 있다. 3층 옥개석과 노반의 상면 중앙에 탕주공이 있다. 이 탑은 미륵대원지와 떨어져 있어 보주탑 역할 즉 깊은 산속의 등대 역할을 하던 탑이라 예상되고 미륵대원지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 ⇒ 유기물층 : 토양의 가장 위층은 낙엽이나 부러진 가지가 쌓여 부분적으로 썩어 있는 층으로 어두운 색을 띠고 있음
- ⇒ 표토 :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는 층으로 영양분이 많아 생물이 활발한 활동을 함
- ⇒ 심토 : 표토 층에서 비와 함께 내려온 물질들이 차곡차곡 쌓인 층
- ⇒ 모재층 : 암석 풍화물이 그대로 쌓인 층
- ⇒ 기암층 : 돌덩이가 그대로 남아 있는 층

○ 다른 눈으로 보는 숲

자연상태에 가까운 자연림에서 나무들은 빛과 수분과 토양의 성질에 따라 비록 나이가 같아도 아주 다르게 성장을 한다.

서로 다르게 성장하는 결과로 다른 빛의 강도가 다른 토양으로 들어오게 되며, 그에 따라 초본 식물이나 이끼류 등이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자연림에서의 숲은 크게 4가지의 층을 이루게 된다.

맨 처음에는 초원을 이루게 된다. 초원을 이루게 되는 곳에 양지형 관목이 자리하게 되고 초원에서 분포하는 외떡잎식물군은 점차적으로 수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양수 관목과 초원 외떡잎식물군이 동일 비율로 점유하게 된다.

그러는 가운데 성장속도가 빠른 양수 교목의 씨앗 종자가 그 토양에 정착하며 성장함에 따라 초원식물과 양수 관목식물의 일조량에 방해가 되므로 점차 성장속도가 늦추어지거나 멈추어 서서히 사라진다. 이를 양수 극상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양수 극상에는 음지에서조차 적은 양의 광합성만으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음수 교목 식물군이 정착하게 되며 나중에는 양수 교목의 키를 훌쩍 넘기게 성장하여 양수림의 성장을 막는다. 처음에는 넓은 양수림 면적에 한 두 개체씩 삐죽 솟아오르는 정도로 그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양수림의 수는 줄어들고 고령의 나무들이 50m 이상, 수령 100년 이상 훌쩍 버티게 되면 일조량 감소로 인해 양수림은 사라지고 음수림이 주종을 이루게 되는 데 이를 음수 극상이라고 한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유심히 숲 속을 관찰하면 식물들 사이에는 많은 빛을 받기 위한 아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 나무와 어느 정도 성장한 나무 그리고 관목의 목본류 등은 키가 큰 나무에 가려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빛을 보기 위해 가느다란 가지 하나가 위로 또는 옆으로 이상하리 만큼 크게 자란 나무들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키가 큰 나무가 고사하거나 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

무를 벌채하지 않은 한, 아래에 있는 키가 작은 나무나 관목들은 충분히 자랄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숲 속은 크게 네 가지의 층을 이루게 된다.

서로 다르게 형성된 숲은 미적인 아름다움이 다르다는 것뿐 아니라 숲에서 사는 생명체의 종류도 다르다.

○ 쓰레기의 분해 기간

종류	분해기간
종이	2~5년
우유팩	5년
담배필터	10~12년
플리스틱 용기	50~80년
나무젓가락	20년
일회용컵	20년 이상
금속(철)캔	100년
알루미늄 캔	500년 이상
스티로폼	500년 이상
유리병	1000년 이상

○ S.P.A 삼림욕 체조

단계	동작 구분	운동 내용
1단계	예비운동	전신의 근육과 뼈를 신장시키는 운동
2단계		도수체조로서 근육과 뼈를 유연하게 함
3단계		도수체조로서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
		
4단계	증진운동	통나무 계단을 뛰어오르면서 다리의 힘을 강화
5단계		평행봉에 팔굽혀펴기로서 뼈와 근육운동
6단계		가설된 통나무를 넘나드는 운동. 온몸운동으로 체력증진

7단계		수평으로 가설된 사다리를 팔로 잡아 이동. 완력강화
8단계		제자리높이뛰기로 순발력과 다리 힘을 강화
9단계		벤치나 평상에서 엎드린 자세로 윗몸 일으키기. 배 힘을 강화
10단계		벤치나 평상에서 엎드린 자세로 윗몸 일으키기. 등운동
11단계		통나무 위에서 좌우로 굴리면서 몸 균형잡기. 평형성 유지
12단계		윗몸을 직각으로 굽혀 땅을 좌우로 회전. 몸을 유연하게 함.
13단계	완화운동	목을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유연하게 운동
14단계		땅을 쪽 펴서 상하로 운동. 몸의 열을 조정, 마무리 운동

답사여행의 길잡이 - 충북-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나는 매일 숲으로 출근한다 (남효창, 청림출판)

신라 천년의 마지막 꿈 국립공원 월악산 (충청북도, 도서출판 고두미)

숲해설 아카데미 (‘생명의 숲’ 숲해설 교재편찬팀, 현암사)

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1(시공테크/코리아비주얼스)

365일 자연체험여행 (서진석, 한울림)

놀이보따리 -환경·자연 놀이편(전국재, 윤컴)

월악산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

